

WTO회원국, TBT위원회 개최

# 공중 보건 관련 규제가 최대 이슈로 작용

WTO 회원국들은 지난 3월 20일 기술무역장벽 위원회를 개최했다. 이번 회의에서는 무역에 미치는 규제인여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특히 공중보건 관련 규제는 회원국들의 최대 이슈로 작용했다. <한수지>



▲ WTO 회원국이 참여하는 TBT 위원회에서는 무역에 미치는 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.

지난 3월 20일에서 21일에 기술무역장벽(TBT; Technical Barriers to Trade, 이하 TBT)위원회가 개최됐다. WTO 회원국들은 TBT위원회에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66개의 규제 안에 대해 논의했다. 논의 범위는 자동차부터 수류, 담배, 화장품, 전자제품 규제까지 다양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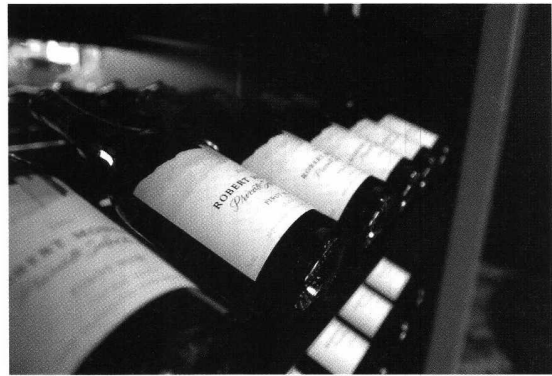
TBT위원회 의제 중에는 건강 관련 의제가 여전히 우세했다. 사실, 1995년 이후 WTO 회원국들이 통보한 통보문(규제안, 수정안)의 50%가 인간 건강과 안전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들이었다. 지난 TBT위원회에서도 담배와 관련된 내용이 최대 이슈였다. 하지만 담배 소비 감소를 목적으로 한 규제들만이 위원회에서 건강 관련 이슈로 논의된 것만은 아니다.

일반적으로 건강 관련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WTO 회원국들은 “건강 보호 목적은 지지한다. 그러나 규제 이행 시 무역에 제한적 영향을 줄 수 있다”는 우려를 표명하였다. 이에 따라 TBT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건강 관련 규제를 포함하여 2011년 위원회에서 논의한 특성무역 현안(주요 내용은 위원회의 연차 보고서(G/TBT/31)에 포함)을 2012년 1차 회의에서 채택한 바 있다.

### 담배, 주류 등에 대한 논의 지속

지난 3월 개최된 TBT위원회 회의에서는 담배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다. 특히, WTO 회원국들은 호주와 브라질의 규제 안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. 2012년 3월 13일 우크라이나는 호주의 평범하고 단순한 담배포장법(Plain Packaging) 및 시행규칙에 대하여 WTO 분쟁해결제제(Dispute Settlement System)에 협의(Consultation)를 요청하였다.

주류와 관련해서는 EU와 멕시코가 러시아의 주류 안전 규제 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. 본 규제는 ‘정의, 판매 규정(제품 표시 및 라벨링), 제품 식별, 안전 요건(제조 및 가공), 포장’을 포함하고 있다. 따라서 EU는 “현 규제안대로 채택될 경우 EU의 많은 와인, 증류주 및 기타 주류 수출업체들이 러시아 시장에 더 이상 진출할 수 없게 될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 이에 대해 러시아는 “본 규제가 TBT협정문 규정에 명시된 대로 투명성 원칙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회원국들에게 적절한 의견제시 기회를 제공하였다”며 “본 규제는 러시아의 WTO 가입 약속의 일환”임을 강조했다.



▲ EU는 현 규제가 채택될 경우 와인 및 기타 주류 수출 업체들의 러시아 시장 진출이 어려워지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.

### 환경 관련 조치에 대한 우려 제기

회원국들은 또 다양한 환경 관련 조치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. 다음은 국가별 환경관련 조치에 대한 우리의 주요 내용이다. **T&S**

- 콜롬비아 바이오 연료 사용 촉진 법령(G/TBT/N/COL/96 및 수정문 - 멕시코 제기)
- 한국 박막태양전지모듈 표준(미국 제기)
- 멕시코 다양한 에너지라벨링 조치(G/TBT/N/MEX/214 - 미국 제기)
- 콜롬비아 디젤엔진 장착 중형차 배기가스 규제 관련 수정안(멕시코, 미국 제기)
- EU 에어컨 및 팬 에코디자인 요건(G/TBT/N/EEC/362 - 중국 제기)
- 프랑스 제품 탄소 발자국 라벨링 및 환경 제품주기 분석 내용이 포함된 탄소라벨링법(Grenelle II)(아르헨티나 제기)